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교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3:17-19)

*Though the fig tree does not bud and there are no grapes on the vines,
 though the olive crop fails and the fields produce no food,
 though there are no sheep in the pen and no cattle in the stalls,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The Sovereign LORD is my strength; he makes my feet like the feet of a deer,
 he enables me to go on the heights (Habakkuk 3:17-19)*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에배 시 - 성찬식 거행 / 찬양예배 시 - 추수감사절 감사찬양 11월 27일, 교회설립 25주년 기념주일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다. 주일 I, II, III 부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며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한다. 또한 추수감사헌금을 봉헌한다.

찬양예배시간에는 가브리엘 찬양대(대장 : 최형

열 장로)의 절기 찬양이 있다.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는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기도한다.

11월 27일(주)은 교회설립 25주년 기념주일이다.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기 바란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회 후원의 밤

11월 25일(금) 오후 6시, 현대리버빌 문화센터

종교개혁500주년 기념사업회(대표회장 이종윤 목사)는 오직성경, 오직그리스도, 오직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개혁주의 정신을 회복하고, 한국교회의 지속적 갱신을 통하여 교회를 교회되도록 기도하고, 함께 힘쓰기로 한 한국의 7개 대표적인 신학회가 모여 2011년에 출범한 기관이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올해 마지막으로 기념사업회 후원 행사가 오는 11월 25일 오후 6시, 현대리버빌 문화센터(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78가길 17)에서 열린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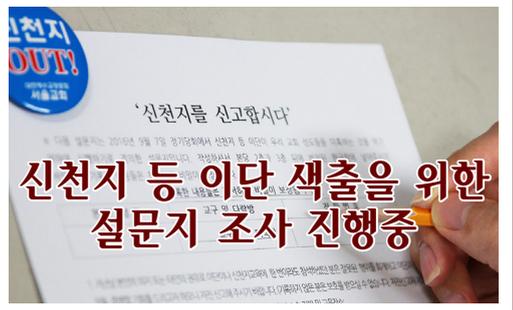
◆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7대사업

지금까지 ① 종교개혁자들의 고전(명저)을 번역 출판하고, ② 종교개혁신학 연구발표,

③ 종교개혁 신학해설 소책자 출판, ④ 년2차 정기학술대회, ⑤ 강연회, ⑥ 종교개혁신학 학술데이터베이스 구축과 ⑦ 종교개혁신학·신앙 확산을 위한 월례기도회 및 신학발표회를 하고 있다.

◆ 종교개혁500주년 한국기념사업회 참여 회원 학회

한국기독교학회,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한국루터 연구학회, 한국칼빈학회, 한국웨슬리학회, 한국개혁 신학회, 한국장로교신학회



신천지 이단 색출 설문지를 성도들은 상세히 읽어 본 후 해당 사항을 작성하여 본당 2층과 3층 뒤에 비치된 헌금함에 넣어주기 바란다. 기록한 내용들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B.M.W.운동

Bus Metro Walking

이종윤 원로목사의 제자의 길

제자 됨으로 부름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치명적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제자 됨이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많이 하고, 열심 있게 봉사도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매우 빈약하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

우리는 이 같은 현실 앞에 새삼스럽게 놀랄 필요는 없다. 주님께서도 이미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감람산 설교에서 예수님은 결혼식장에 나타날 신랑을 기다리는 미련한 여인들을 중생치 못한 그리스도인들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바 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또한 예수님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는데 실패한 한 남자가 주인에게 저주를 받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울며 이를 갈았다는 말씀을 통해 거

짓 신자를 비유로 말씀하셨다(마 25:30). 뿐만 아니라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벗은 자를 입히지 않고, 병든 자를 돌보지 않고, 갇힌 자를 찾아보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 저들은 중생한 신자라 하니 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멸망할 자라고 말씀하셨다.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무엇이 부족한가?

1. 값비싼 은혜

제자 되지 않는 믿음, 순종 없는 은혜를 가르치는 신학, 예수를 생명의 주로 고백함이 없이 구주로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잘못된 신학들이 안개처럼 우리를 뒤덮고 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제자가 되려 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으면 안일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약속으로 미혹하는 반영 신학, 중생의 체험과 변화와 관계없이 출세교인 수만 증가시키려는 교회, 본 회퍼는 이런 신학을 싸구려 은혜라고 불렀다.

싸구려 은혜란,

‘회개를 요구할 없이 용서를 설교하거나, 교회 훈련 없이 세례를 베푸는 것, 고백 없는 성찬식, 개인적 고백 없이 용서를 선언하는 것’이다. 싸구려 은혜는 ‘제자 됨이 없는 은혜요, 십자가 없는 구속이며, 살아계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복이다’

반면 값비싼 은혜가 있다. 값비싼 은혜란 ‘말에 감춰진 보화를 얻기 위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기쁘게 파는 것,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이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 자기를 실족하게 하는 눈을 뽑아 버리는 것, 예수

님께서 부르실 때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좇는 것’이다.

값비싼 은혜는 다시 찾고 또 찾아야 하는 복음이고 구해야 할 은사이며 두드려야 할 문이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는 것은 값비싼 은혜이다.

2. 주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제자 됨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며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즉시 주님을 좇았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을 때도,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 때도 그들을 즉시 예수님을 좇으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들이 예수님을 좇은 것은 단순히 육신만이 아니다. 그들을 죄에서 떠나 구원의 길로 돌이킨 것이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부르실 때 ‘따르라’는 말 대신 ‘와서 보라’(요 1:39)고 하셨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신 후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따르고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좇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길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나를 따르라’는 말이 복음서에 13번 나타난다. 그밖에도 여러 차례 동의어로 표현된 것을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 됨은 크리스찬이 되는 첫 걸음이다.

(다음 주 계속)



최명열 장로
(가브리엘 찬양대 대장)

혼동과 무질서가 난무한 올해! 무엇으로 감사드릴까? 주께서 받으시길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만 허물과 죄로 얼룩진 죄인이기에, 오직 십자가상의 주님을 바라보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역사 속에 나타하신 위대한 주님의 능력을 찬양 드립니다.

아름에게 나타나신 벨엘의 하나님! 험한 이 세상에서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 문 여시고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 드립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 따라 이적 행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신 구원의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시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병거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을 찬양 드립니다. 고요한 아침에 우리들이 불

잡혀서,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드릴 때, 찬양을 주사 찬양케 하신 주님이시여! 참 안식을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활활 타는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하여도, 머리털하나 상한 흔적 없이 구원해 주신 위대한 주의 손, 이해할 수 없지만 찬양을 드리나이다.

풍요 속의 가난을 주신 것, 평안 속의 불안을 주신 것, 구원 속의 멸망을 주신 것 감사하며 찬양 드립니다. 시험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절망 속에서도 감사드립니다.

이는 여호와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사 푸른 초장과 월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이라. 어깨 춤추며 찬양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찬양의 자리에 함께하여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영광의 찬양을, 찬양에 익숙한 가브리엘찬양대원들과 함께 드립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돌아본 한국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로부터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외친 종교개혁운동은 이 땅의 개신교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다. 여러 세기 동안 교황청은 유럽의 정치에 깊이 관여하며 정치 권력과 결탁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 면죄부와 성물을 판매했고, 성직자의 타락은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완전히 붕괴시켰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며 시작된 종교개혁운동의 중요한 두 명의 지도자는 마르틴 루터와 요한 칼빈이다. 사실 16세기 종교개혁은 그 이전에도 선례가 있어서 16세기의 위대한 인문주의 학자인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는 '교회에 만연된 미신과 도덕적 악습을 공격하고 최고의 교사인 그리스도를 모방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 원로 6명(이중윤목사, 김순권목사, 김명혁목사, 김영한교수, 이광순교수, 문성모교수)은 한국장로신문사 르비딤홀에서 종교개혁 정신에 비추어 앞으로의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토론을 나눴다.

이날 모인 교회 원로들은 한결같이 지금의 한국교회는 위기에 빠졌다고 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사회에 본이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선하여 루터의 95개 조항 중 가장 첫 번째 있었던 회개가 우리 한국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하며, 교회가 먼저 회개를 해야 정치도 사회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김영한교수(숭실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초대원장)는 우리가 이 나라의 타락한 정치를 비판하지만 타락한 정치는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제 구실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한국교회 지도자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또 이중윤목사(서울교회 원로목사,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는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고 교회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도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지금의 한국교회는 주일성수와 같은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삶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음을 통감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왜곡하는 주범은 잘못된 신학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성경을 왜곡하는 주체세력을 질타하고 추방하는 것이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문성모교수(서울장신대 총장 역임, 현 한국교회에서 목회)는 말했다.

코람데오는 종교개혁자들의 삶이었다. 코람데오의 삶은 아는대로 살고, 믿는대로 사는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바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곧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에 이광순교수(주안대학원대학교 총장 역임, 현 한국로잔회의

장)는 코람데오의 삶은 가치의 문제라고 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했다. 김명혁목사(강변교회 원로목사, 현 한복회 회장)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성찰하는 크리스천이 되자고, 김순권목사(예장통합교단 총회장 역임, 경천교회 원로목사)는 아침이 밝아오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지금의 시대를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한국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종교개혁은 제도를 변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종교회복운동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이단과 사이비는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기독교를 맴돌며 기독교인을 현혹시켜왔다. 지금 한국은 미국에 이어 제일 많이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는 나라가 되었다.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다섯 개의 기둥이 있다. Sola Scriptura(오직 성경만으로), Sola Fide(오직 믿음만으로), Sola Gratia(오직 은혜만으로), Solus Christus(오직 그리스도만으로), Soli deo Gloria(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바로 그것이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의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바른 신학 위에서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배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릴 수 있을 것이며 이 땅이 교회도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가 그렇게도 염원하는 마라나타! 우리 주님은 내일이라도 오실 것이다.

*기사 전문은 한국장로신문 제1525호에서 볼 수 있다

(편집부)



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은이가 2011년 고 2때 다은이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져 뇌수술을 하게 되어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워 대학은 생각도 못하고 다은이의 앞날이 깜깜했는데 호산나대학 이동귀부학장님께서 다은이가 다니고 있는 안산 성안고등학교를 방문 하셔서 다은이와 같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대학도 가고 일



주셨고 다은이를 학교에 다시 보내 부족한 부분을 교육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꿈에 그리던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서 걱정도 했지만 다은이가 헤드님, 시안님, TR님,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를 써가며 그 분들이 그런데요 "첫 번째로 일 잘하고

성실하다"며 칭찬받았다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저녁 내내 직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며 즐거워하는 다은이의 이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 집니다.

다은이가 모태신앙인데 배속에 있을 때부터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아이가 되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나 싶어요. 지금은 앞으로 다은이에게 좋은 일만 생길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다은이는 취업을 해서 월급 받으면 어려운 후배들을 돕고 싶다고 몇 번이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기다렸던 첫 직장 면접에서 다은이가 너무 긴장을 해서 인지 취업에 실패해 큰 상처를 받았고 얼마간 자신감 없이 생활했습니다. 학교에서 인턴과정을 추천해

다은이가 예쁘고 밝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 호산나대학 교수님과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항상 감사하고 모든 것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드립니다.

노다은 엄마 올림
<노다은 학생은 애슬리컨즈 압구정점에서 근무>

제 40학기 서울성경대학 및 2016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수료자 명단

- **살렘경로대학 : 36명**
강애자 공진문 길경자 김금자1 김길자 김덕자 김미순 김영정 김영철 김희경 박동희 박양임 박정숙3 박춘자 박혜숙 백명자1 송옥혜 여옥기 유순임 이경자 이덕빈 이동인 이춘자 전인화 정봉금 정빈모 정애신 정정숙 정정화 최성연 최성익 최죽희 최향봉 황성연 황일운 황정옥
- **고린도전서 : 10명**
김옥순 남재은 노애리 손용문 송명원 유선희 이계홍 이홍숙 최미경 최종희
- **성경통독반 : 23명**
고정숙 김선호1 김수호 김애리1 김영식 김민숙2 김정두 김찬진 박정자1 박영민1 석춘희 신소영 양미경 이명신 이아미 이윤희 이인숙2 이정연1 임선영 임송자 정미연 최금호 최종희
- **서울음악교실 : 6명**
김동건2 김재일1 김순영 이윤희5 이진리 최재혁
- **어머니 힐링 스쿨 : 56명**
강정화 김숙영2 김서윤1 김태옥 김태영 김선혜2 김명애1 김정순6 김소형 김윤희4 김영숙11 김영남 고은미 고영숙 박수강 박수옥 박영주2 박계진 박영신2 방소연 박길희 박은주3 송미애 송희경 서미향 이영임 유기순 양종숙 이은

- 영 이정하2 이주연 이미경11 유미숙2 이정민8 양연평 유정화 유승애 조제음 정영희3 전유정 조윤순 윤계진 지강희 조정옥 전은정2 주위순 최수황 최순영 최옥경2 최재련 최형숙 황영숙 홍성미 홍현숙 함은경 황혜진2
- **비블리오바이블스쿨(BBS) : 24명**
김보민 김윤호 김선재 김선호 김종현 김하진 김하윤1 김울 신아령 신경미 손예은1 송채원 유하연 오태운 이승화 이창화 이혜진7 안성희 윤영숙2 조현정 최경선 최재련 최윤희3 황민아
- **아기학교 : 43명**
강효선 권수정 기태연 김가엘 김경숙 김다인 김민준 김서은 김예은6 김이환 김정원 김주하 박민경1 박세연1 박시현3 박이레 박지혜4 설금숙 송미령 신은미 신주현 심지우 안제나 안지민 안혜민 윤주아 이윤미 이하윤1 이현순1 임영숙 전경화 정승빈 정혜윤1 조예진2 조동희1 조진영 조하음 채지윤 천선영 최은성1 한민혜 한혜선2 홍세아
- **마가복음 : 4명**
김성혜2 송정윤 전행욱 홍명숙
- **전도학교 : 10명**
강정화 고은선 김수원 김은연 남경혜 양승호 최순영 최형숙 한의정 황선경1

특별 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가브리엘찬양대(대장:최형열장로)의 '추수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백경화 권사의 지휘로 "Te Deum 하나님인 주님을 찬양하나이다(Antonin Dvorak 곡)", "이곳이 베넬이로라(김선하 곡)", "모세(국현 곡)", "이집트의 이스라엘인(Georg F.Handel 곡)", "바벨론(Michael Watson곡,백경화 편곡)"등 아홉곡의 찬양을 드리며, 오르가니스트 차주연 집사, 피아니스트 임아름 성도, 팀파니스트 윤주일 집사가 함께 연주하고 안홍찬, 박석정선생이 타악기를 맡는다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22일(화) 연세대신과대학 동창회 정기총회 참석하고 23일(수) 북한구원운동(Save N.K)주최 탈북청소년 사진전 축사를 한다. 25일(금) 한국군선교연합회 정기이사회 참석하고 26일(토) 고 김상철기념사업회 공동회장.이사회 참석한다.

■ 주일식당봉사 : 베드로 선교회 (11.20)
안드레 빌립 선교회 (11.27)

■ 금주의 식사제공 : 윤명구 집사 김영옥 권사 가정(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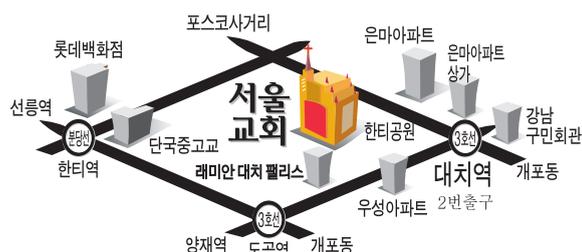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한 해를 돌아보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11월 20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2. 수능(11월 17일)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3. 20사단 진중세례식(11월 19일)을 통하여 군복음화와 민족복음화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분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웨 스트민 스터 홀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분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분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분 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